

UNDP와 GCF,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 저탄소·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에 투자

2016.8.5, 뉴욕 - 유엔개발계획(UNDP)과 녹색기후기금(GCF)이 인증기본협정(Accreditation Master Agreement, AMA)에 서명하면서 저탄소·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AMA는 GCF 재원을 사용하기 위한 GCF-인증기구 간 협력의 기본 조건을 담은 핵심문서이다. UNDP는 2015년 3월 GCF가 인증한 첫 7개 기구 중 하나로 GCF의 핵심 파트너이다.

헬라 쉬흐로흐(Héla Cheikhrouhou) GCF 사무총장은 협정 서명식에서 “UNDP는 GCF의 중요한 파트너로 협정 서명은 우리가 전세계 국가의 적응·감축노력을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테제느웁 게투(Tegegnetwork Gettu) UNDP 부총재(Associate Administrator)는 “이번 협정에 서명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GCF와 협력하여 파트너 국가가 경제변혁을 통해 탄소제로·기후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GCF 이사회는 UNDP가 제안한 6개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아르메니아, 말라위, 몰디브, 스리랑카, 투발루, 베트남의 감축적응 목표를 지원하고자 한다.

UNDP는 대규모 기후재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의 역량강화를 위한 GCF 파트너십도 맺었다. 역량강화 협정서명은 이런 활동을 이행에 있어 중요한 단계이다.

이제까지 총 11개 인증기구가 AMA에 서명하였으며, 다른 인증기구도 AMA 막바지 작업 중이다.

어큐먼 펀드, 모로코 농업개발청(ADA), 캐리비안 기후변화센터(CCCCC), 세네갈 개발기관(CSE), 나미비아 환경투자기금(EIF), 르완다 천연자원부(MINIRENA), 케냐 국립환경관리청(NEMA), 페루 국립공원보호지역 신탁기금(PROFONANPE), 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SPREP),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기상기구(WMO)

UNDP는 사회 각층과 파트너십을 맺고 재난대응 및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성장을 추진·유지할 국가 건설을 돕고 있다. 170개 이상 국가/지역 현지에서 글로벌 시각과 현지의 통찰력을 함께 제공해 권리 향상과 회복력있는 국가 건설을 돕고 있다.

녹색기후기금(GCF)은 유엔기후변화협정(UNFCCC)의 194개 회원국이 설립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 제한과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 지원을 위한 기후행동 자금지원이라는 임무를 갖고 있다. GCF에 공약된 자금 액은 100억 달러 이상이며, 그 중 4억2천만 달러 가량을 집행했다. GCF 이사회는 올해 말까지 25억 달러 투자 승인을 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다.